

‘제45회 한국방송대상’ 대상 SBS 8 NEWS ‘에버랜드 수상한 공시지가와 삼성 합병 보도’

45년 방송대상 사상 뉴스로 대상 수상은 단 두 번, 두 번 다 SBS가 해냈다!

9월 3일(월) 열린 한국방송협회(회장 박정훈) 주최 ‘제45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SBS 8뉴스>의 ‘에버랜드 수상한 공시지가와 삼성 합병 연속보도’ (정명원·이병희·박세용·김종원·한세현·장훈경·박하정·정성진 기자, 조창현 영상취재기자, 안혜민 데이터저널리스트)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들은 “공영방송이 다뤄야 할 주제인 정치 권력, 경제 권력에 대해 가장 광고 수익에 민감한 민영방송 SBS가 집요하게 파고들었다”며 “방대한 자료조사, 전문가 자문, 내용 이해를 돕는 정교한 인포그래픽 등을 통해 지상파이기에 가능한 취재 역량을 과시하며 심층적 탐사보도의 전형을 보여주었다”고 격찬했다.

해당 보도는 3월 19일 처음 포문을 연 뒤 4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 16개 아이템, 총 81분을 통해 에버랜드의 수상한 공시지가 변동에 어떤 의혹이 있으며, 변동된 공시지가가 증권사 리포트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를 심층적 취재로 세상에 드러나게 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완성을 위한 삼성물산 합병에 우호적인 여건을 만들기 위해 토지 과세의 근간인 공시지가가 움직이고,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손실을 보게 되는 과정이 입체적

으로 보도되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탐사보도부 끝까지 판다팀은 이 연속 보도로 크고 작은 사내 상은 물론,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한국방송기자클럽(BJC) 1분기 보도상,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보도상 등 굵직한 외부 상을 휩쓸었다.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방송대상 시상식의 대미를 장식하며 대상을 받은 탐사보도부 데스크 정명원 기자는 “탐사보도팀은 국정농단사태를 거치면서 ‘SBS가 권력과 자본 감시를 제대로 하고 있었나’ 반성의 토대에서 출발했다. 그 마음가짐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두 박두박 걸은 결과인 것 같다. 새로운 탐사 보도의 전형을 만들어가자는 목표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병희 기자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삶의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SBS가 대상을 받은 것은 1991년 개국 이래 제27회 <생명의 기적>(2000년), 제39회 <뿌리 깊은 나무>(2012년), 제43회 <KF-X 핵심기술 이전 거부 단독 보도 및 KF-X 사업 관련 연속보도>(2016년)에 이어 네 번째다. 특히 방송대상 45년의 역사상 뉴스가 대상을 받은 것은 <KF-X 핵심기술 이전 거부 단독 보도 및 KF-X 사업 관련 연속보도>(2016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두 번 다 SBS가 받은 것은 SBS 보도의 높은 위상을 여실히 입증한다.

이와 함께 <SBS 8뉴스>의 ‘유명 침대 음이온 대신 방사능 라돈 나온다’ (장세만·강청완·정구희·강민우 기자) 단독 보도가 뉴스 보도 부문 작품상을 수상하여 기쁨을 더했다. 또 <집사부일체>(이세영, 김정욱)가 예능 부문 작품상을 차지했으며, <그것이 알고 싶다> ‘잔혹한 총성’ 2부작(장경주, 이큰별)이 시사보도 부문 작품상을, <두시탈출 컬투쇼> ‘제6차 컬투쇼 UCC 콘테스트’ (김찬웅, 이준원)가 라디오 연예 오락 부문 작품상을 받는 등 방송협회 회원사 중 가장 많은 5개 부문의 작품상을 거머쥐었다.

한편, 개인상 부문에서는 박선영 아나운서가 아나운서상, 편집기술팀 박찬호 차장이 기술진흥상, 이주형 뉴미디어제작부장이 뉴미디어프로그램제작상, 연기자 감우성이 <키스 먼저 할까요>로 연기자상을 수상했다.

한국방송대상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방송 시상식이며 1년 동안 지상파 방송을 빛낸 수많은 시사, 보도, 드라마, 교양, 예능 프로그램 중 가장 우수했던 작품과 방송인을 발표한다. 올해는 201편이 접수돼 예심과 본심을 거쳐 대상 1편, 작품상 22편, 개인상 22명이 선정됐다.



<SBS 8뉴스> ‘유명 침대에서 라돈 검출’ 강청완 기자



<두시탈출 컬투쇼> ‘제6차 컬투쇼 UCC 콘테스트’ 김찬웅 PD



<그것이 알고 싶다> ‘잔혹한 총성’ 2부작 장경주 PD



<집사부일체> 최영인 예능1CP

세상에 이런 일이

1000회 대기록을 쓰다

평범한 이웃들의 특별한 사연으로 재미와 감동 주며 대표 교양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프로듀서: 신용환, 연출: 박진용, 최민철, 위상현)가 2018년 9월 13일(목) 방송 1000회의 대기록을 쓴다. 1998년 5월 21일 첫 방송을 시작한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일이나 특별한 사연을 맛깔나는 내레이션으로 전달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20년 동안 소개된 사연만 무려 약 4,600건, 시청자 제보는 약 124,500건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1999년 '누렁이 구조작전', '부산 원숭이', 2002년 '맨발의 기봉이', 2004년 '선풍기 아주머니', 2016년 '섬유종 여인' 등은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순간포착〉의 레전드로 회자되고 있다.

9월 11일(화) 목동 SBS방송센터 제2스튜디오에서 임성훈, 박소현, 이윤아 3MC가 참석한 가운데 〈순간포착〉 1000회 기념식과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박정훈 사장은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제목을 제가 만들었다. 처음엔 <어떻게 이런 일이>였다"며 특별한 인연을 밝힌 뒤 "신기한 이야기를 담자고 했던 프로그램이 하다 보니 이 세상의 따뜻한 이야기를 담는 프로그램이 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 정신은 휴머니즘이다. 그래서 1000회

까지 오게 됐다"면서 "프로그램이 계속되는 한 그런 정신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모친상과 갈비뼈 골절 등의 악재에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순간포착〉을 지켜온 임성훈, 박소현 진행자는 이 자리에서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최장수 공동 진행자 인증서를 받기도 했다. 임성훈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만 해도 6개월 가면 잘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주변의 신기한 일들을 한 주에 4개씩 소개하면 6개월 가면 고갈될 것이라 생각했다. 제작진의 끊임없는 열정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너무 기쁘고 뿌듯하다"고 전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박소현도 눈물을 보이면서 "꿈인 것 같다. 98년에 시작할 때 이런 일을 상상하지 못했다. 나를 힐링하는 프로그램이라 매주 즐겁게 녹화를 왔다. 꽃다운 나이에 시작했지만 나를 철들게 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임성훈은 1000회까지 온 원동력을 묻는 질문에 "사실 우리 프로의 대표이자 원동력은 바로 제작진"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우리 프로는 제보로 이뤄진다. 제보를 받으면 어디든 찾아가서 방송 적합 여부를 며칠 동안 지켜보며 판단한 후에 촬영한다"며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

도 방송되지 못하고 헛수고로 돌아가는 경우가 반이 넘는다. 〈순간포착〉은 제작진의 노력과 열정이 없으면 존재하기 어렵다"고 영광을 돌렸다.

박소현 역시 "방송에 나가고 나서도 제작진이 따로 다시 찾아가기도 한다. 방송에 내진 않지만 그분들의 뒷이야기까지 신경 쓴다는 게 제작진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순간포착〉을 이 자리까지 끌고 온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

임성훈은 "500회만 해도 대단했는데 900회, 1000회까지 왔다. 이제 1111회까지 하고 싶다. 1111은 한 번 일내보자는 의미다"라고 새로운 의미를 불태웠다. 박소현 역시 "하루 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1111회도 올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박진용 PD는 "〈순간포착〉이 1000회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시청자들의 단비 같은 제보와 최선을 다해 작품을 만드는 제작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오늘도 제작진은 단비가 내리길 기도하는 심정으로 현장에 출동하고 있다. 시청자가 주신 귀한 단비를 모아 앞으로 <순간포착〉은 진정한 인간애를 담아내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BS 러브FM 개편 - <시사전망대> 낮 2시로 파격 이동! 퇴근길 <집으로 가는 길 소이현입니다> 신설



SBS 러브FM이 9월 10일(월)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으로 SBS 대표 시사 프로그램인 <김성준의 시사전망대>가 저녁 6시에서 낮 2시대로 자리를 옮겼다. 시사 프로그램이 아침이나 저녁에 몰려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파

격적인 자리 이동이다.

9월 5일(수) 목동 SBS방송센터 락 스튜디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문수 라디오1CP는 "경쟁력 강화와 차별화된 편성으로 청취자들의 채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저녁 시간대가 어느덧 시사프로그램들의 각축장이 되었다. 라디오 낮 시간은 무조건 연예 오락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시사프로그램이 전문한 낮 시간대 뚜렷이 존재하는 시사 수요층에게 적극 어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준 앵커는 "저녁 시간에는 새로운 이야기를 못하고 정리만 하는 느낌이었다. 이제 낮 시간대로 옮겼으니, 우리 프로그램이 결말까지 세팅할 수 있을 것 같다. 가장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고, 가장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순간에 다리 역할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시사전망대>가 빠진 저녁 6시대에는 <집으로 가는 길 소이현입니다>가 편성됐다.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을 통해 인기자기한 일상을 공개해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탤런트 소이현이 가요, 팝, OST를 들려주며 밝고 따뜻한 그녀만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라디오 DJ가 꿈이었다는 소이현은 "데뷔 16년 만에 처음 DJ를 맡는 거라 실수도 있겠지만 편안하게 동반자가 되어주면 좋겠다. 같이 손 잡고 가는 편안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일요일 오전 11시에는 성대모사의 달인 안윤상이 진행하는 <안윤상의 선곡! 진검승부>가 방송된다. <진검승부>는 한 주의 주요 이슈를 두고 여러 유명인이 성대모사로 등장, 이슈에 걸맞은 선곡으로 배틀하는 음악 풍자 프로그램으로 색다른 재미가 기대된다.

토, 일 낮 2시에는 다운타운 클럽가의 스타, DJ 래피가 진행하는 <DJ 래피의 드라이브 뮤직>이 방송된다. 나른한 주말 오후 유명 가요, 팝을 신나는 리믹스 버전으로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며 생방송을 통해 생생한 각종 생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新 여행 예능 <무확행> 9월 13일(목) 첫 방송

서장훈×이상민×김준호×이상엽 왠지 '짠한' 그들의 행복찾기 여정

무확행



신규 예능 프로그램 <무확행>이 9월 13일(목) 밤 11시 10분에 첫 방송된다.

<무확행-무모하지만 확실한 행복>은 국민 돌싱남 서장훈, 이상민, 김준호 3인방과 이상엽 이 남들 눈에는 무모해 보이지만 각자 자신의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 떠나는 생 처절 리얼 로드 쇼다.

잃어버린 인생의 반쪽을 '무확행'으로 채우겠다는 돌싱남들과 이별 2년 차인 이상엽이 각자 너무나도 다른 취미, 취향, 식성, 습관에도 불구하고 함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 웃음과 재미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예능 <미운 우리 새끼>를 연출하면서 다진 예능감으로 <무확행>을 기획한 최소형 PD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봉변을 당하고 갑작스러운 위기에 멘붕에 빠지기도 하면서 환장의

브라더스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집에 누구도 들이지 않는 대한민국 대표 깔꿈남 서장훈과 더러움엔 한없이 너그러운(?) 뼈그맨 김준호, 어디에 있던 빛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민, 천방지축 예능 새내기 이상엽을 비좁은 캠핑카에 모아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 만남에서 '나이 서열' 대신 '돌싱 서열'을 논하고, 냉장고 속 썩어가는 과일에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혼자 파스 붙일 때 고독함을 느끼는 돌싱남들의 공감 백배 불행 에피소드와 그들이 보여주는 '환장의 불협 케미'는 리얼을 뛰어넘는 '날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때로는 무모하고, 때로는 무식하지만, 무조건 행복하고 싶은 짠내 폴폴 4인방의 웃프고도 처절한 <무확행>은 SBS 하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주목받고 있다.

<빅픽처 패밀리> 시골 사진관에서 건진 나와 이웃의 인생샷

차인표×박찬호×류수영×우효광 인기 힘든 라인업으로 기대만발!



신규 예능 프로그램 <빅픽처 패밀리>가 한자리에서 보기 힘든 톱스타 캐스팅을 공개하며 9월 출격을 예고했다.

SBS가 새롭게 선보이는 <빅픽처 패밀리>는 '살며, 찍고, 나누는 인생 샷'을 콘셉트로, 4명의 사랑꾼들이 작은 마을에서 일주일간 동거하며 '인생 샷'을 남기는 모습을 담아내는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이다.

한자리에 모여 있는 모습을 상상조차 하기 힘든 차인표, 박찬호, 류수영, 우효광이 출연을 확정 지어 '대박' 라인업이 완성됐다. 직업도, 국적도, 나이도 다르지만 '사랑꾼', '아빠'라는 공통점을 지닌 네 남자는 그 어느 곳에서도 본 적 없는 신선한 조합으로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따뜻한 마음과 시선을 가진 네 남자는 7일간 경상남도 통영의 낯선 동네에서 사진관을 열고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며 겪게 되는 특별한 경험을 인생 샷으로 남긴다. 또 사소하든 특별하든 사진관을 찾는 손님의 이야기를 듣고 특별한 인생 샷을 찍어 준다.

아름다운 자연과 정이 어우러진 동네에서 나만의 인생 샷도 건지고, 이웃의 인생 샷도 찍어주는 '살며, 찍고, 나누는' 좌충우돌 남자들의 인생을 건 리얼리티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연출을 맡은 이지원 PD는 “한 편의 리얼 시트콤을 보는 듯한 네 사람의 케미로 전에 보지 못한 예능이 탄생했다”고 밝혀 더욱 기대를 모은다.

각기 다른 네 남자가 보여줄 7일간의 동거 라이프는 어떨지, 승부욕 넘치는 이들의 좌충우돌 사진관 운영기에 귀추가 주목된다. 9월 추석 연휴 중 첫 방송 예정.

<정글의 법칙 in 라스트 인도양> 9월 28일(금) 첫 방송

국가대표 3인방 이상화*곽윤기*이용대, 정글에서도 금메달리스트!

<정글의 법칙 in 라스트 인도양>(연출: 백수진, 김명하)이 9월 28일(금)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병만족의 39번째 도전인 <라스트 인도양> 생존의 관전 포인트를 꼽아봤다.



1 생존도 국가대표급! 대한민국을 빛내는 스포츠 스타 3인방 합류

<라스트 인도양>에는 병만 족장을 비롯해 선발대로 김성수, 돈스파이크, 강남, 이상화, 곽윤기, 문가비, 정세운, 붐, 김도연(위키미키), 루카스(NCT)가 출연하며, 후발대로 조재윤, 정겨운, 이용대, 이민혁(비투비), 준(유키스), 이유비, 연우(모모랜드)가 출연한다. 그중에서 단연 화제는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 쇼트트랙 곽윤기, 배드민턴 이용대 3인의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다. 이들은 10년 넘게 최정상의 자리에 있는 현역 선수들인 만큼 정글에서도 금메달리스트다운 생존력을 보여줬다고 한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선수들의 반전 매력과 진심 토크까지 들어볼 수 있다고 하니 기대를 모은다.

2 병만족장도 초긴장한 역대급 생존 미션! '야생 코끼리 정글 생존'

이번 시즌의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야생 코끼리다. 비교적 친숙한 동물로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코끼리는 압도적인 크기와 난폭성으로 사자, 악어, 하마 등의 포식자들도 단번에 제압하는 지상 최강·최대의 동물이다. <라스트 인도양>의 전반전 무대가 될 스리랑카는 세계적인 야생 코끼리 서식지로 연간 50여 명이 코끼리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 때문에 제작진은 야생 코끼리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고 한다. 특히 야생 코끼리가 득실거리는 정글에서의 생존을 위해 병만족장의 8년간의 경험과 스킬이 응축된 특별한 정글 하우스가 등장할 예정이라 하니 이 또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3 사라지는 섬? 지상낙원 몰디브 섬의 이면

<라스트 인도양> 후반전 생존 무대는 '인도양의 꽃'이라 불리는 몰디브 섬이다. 에메랄드빛 바다, 천혜의 해양 자원을 가진 몰디브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50년 안에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있다. 병만족은 사라지는 모래 섬, 쓰나미로 폐허가 된 섬 등에서의 다양한 생존을 통해 지상낙원 뒤에 가려진 슬픈 현실을 시청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인도양의 최남단 정글에서 펼쳐지는 예측불허 리얼 생존 <정글의 법칙 in 라스트 인도양>은 오는 28일(금)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고혈압약에서 발암의심물질 검출' 이달의 방송기자상



고혈압약 원료인 발사르탄에서 발암의심물질이 검출됐다는 연속 보도로 보도국 정책사회부 노유진, 배준우 기자와 SBS A&T 박춘배 기자가 한국방송학회와 방송기자연합회가 주는 제118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받았다. 취재팀은 이 보도로 식약처의 발사르탄 원료 전수 조사를 이끌어냈고, 추가로 60여 종의 약품 판매를 중지시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8월 30일(목) 방송 회관에서 열렸다.

<SBS 스페셜> '취준진담' 이달의 PD상



<SBS 스페셜> '역지사지 면접 프로젝트 취준진담'이 한국PD연합회가 주는 이달의 PD상을 받았다. <SBS 스페셜> '역지사지 면접 프로젝트 취준진담'(연출: 오학준·이동원, 촬영: 박찬웅, 작가: 이은정)은 취업 준비생들이 면접관으로, 회사 임원들이 지원자로 참여한 1박 2일간의 '역지사지 합숙면접'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심사위원회는 "구직자와 구인자의 위치와 입장을 바꾸는 신선한 발상을 통해 취업이라는 이 시대의 화두를 담아낸 시의성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했다.

SBS·KOICA·굿네이버스·대교 '탄자니아 에듀테인먼트 비즈니스 구축사업' 협약



SBS와 KOICA(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이미경), 굿네이버스(회장 양진옥), (주)대교(사장 박수완)는 지난 5일 목동 SBS방송센터 20층 대회의실에서 <희망TV SBS> '희망사다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탄자니아 에듀테인먼트 비즈니스 구축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아동들의 학습기회 증진 및 에듀테인먼트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업비 10억 원 규모의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들을 위한 영어 회화 교육 프로그램을 현지에서 자체 제작하고, 탄자니아 최초로 공영방송을 통해 탄자니아 전역에 송출될 예정이며 SBS는 미디어 전문가 파견 교육을 진행하고 콘텐츠 제작 지원 및 방송 제작 장비를 보강한다.

안식년을 맞이했습니다



문화사업팀 이재준 국장과 편집기술팀 김용진 부국장이 9월부터 안식년을 맞이했다. 이재준 국장은 SBS 개국 멤버로 인사팀장, 총무팀장, 광고팀장을 거치며 경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관리자로서 열정을 다했다. 특히 IMF, 세계 금융 위기 등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혼신의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 후배들에게는 늘 자상한 선배였으며, 퇴임 이후의 멋진 삶의 설계로 또 한번의 청춘을 기획하고 있다. 김용진 부국장은 1991년 TV기술팀에 입사하여 주조정실 설계와 시스템 구축 업무를 담당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주조정실 기술감독을 거쳐, DMB 기술감독을 끝으로 안식년에 들어가는 김용진 부국장은 마지막까지 SBS TV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송출과 운용을 고민했던 영리한 현업 엔지니어였다. 김용진 부국장은 장애시설 캠프 기간에 맞춰 휴가를 사용할 정도로 봉사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왔던 바, 안식년 기간 동안 '봉사 활동'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한다.